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 개발
- 중년기 전업주부 가정을 대상으로 -

Study on Development of Household Analysis and Diagnosis Program
for Enhancing the Family Welfare
- Focusing on Household of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

송혜림 · 이승미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 우석대학교 가정복지학과

Song, Hye-Rim · Lee, Seung-Mi

Dep.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ersity

Dept. of Family Welfare,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household analysis and diagnosis program for the enhancement of family welfare focusing on the household of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From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s, the following areas of total family life were selected ; household management, time use, housing, household materials, finance,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Considering that the program subjects were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the preparation for elderly life and the identity as housewife, one of the healthy family members, are appended. The progresses for the development of household analysis and diagnosis program were as follows : 1. to select the useful area of family life, 2. to make the indicators which explain the status of family life, and 3. to decide the scales for the diagnosis. This program has various us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self-evaluation program, program for various family life course. Through this program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family life can be found and the planning for the enforcement of family life can be practiced.

Key words : family welfare, household analysis and diagnosis program, family life planning

I. 머리말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과정을 거쳐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계층별, 지역별로 산업사회

의 문화적 특성, 정보화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사회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 개인과 가정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주체적인 변화의 동인을 제공함에 있어 역동성과 다양성을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KRF-2002-002-C00130)

Corresponding author : Song, Hyerim
Tel : (052) 259-2881 Fax : (052) 259-2888
E-Mail : hrsong@mail.ulsan.ac.kr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가정생활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변화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주체, 즉 가족원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정경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목표, 새로운 체계적 관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힘이 되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인 생활의 장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단위이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재생산활동, 여가생활, 더불어 삶의 문화 그리고 삶의 질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재생산, 여가, 공동문화 등이 모두 가정생활의 과정에서 수행·경험·축적되는 생활의 중요한 국면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하여 다시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특히 전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복지의 개념도 요보호자나 자원 결핍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범주를 넘어 일반인, 일반가정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켜 주고 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진정한 가정복지는 문제가정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예방적, 조정적, 치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유영주, 1995:1). 더불어 각 가정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가정의 자원화(박혜인 외, 1999)를 지원하고 확산시킴으로써 가정복지의 증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문화의 개념이 복지에 더해짐에 따라 여가, 휴식 등 재생산이 중요해 지는 후기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서 가정의 정서적 기능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의 창조와 유지를 위하여, 즉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가정생활의 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취약점, 한계점을 찾아내어 보완하고 동시에 강

점을 강화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기능 자체를 회복 내지 향상시키는 일이다.

기존의 가정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개별적/대상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질적 향상과 가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 대안을 제공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금까지 빈번히 거론되어 왔는데(송혜림, 2000) 그 하나의 이유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통합적인 관점에서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가정생활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척도나 프로그램이 빈약하였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짚어낼 수 없다면, 제공되는 복지적 지원이나 서비스의 효과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정생활을 하나의 통합적 체계로 바라보면서,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그 구조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의 기초적인 틀을 세우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계구조 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전반적인 가정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정경영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사결정도대, 즉 가정경영의 설계도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다른 가계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가계체계의 특수한 문제해결전략 및 능력을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서 각 가계체계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동대안들을 가시화함으로써 구체적, 실천적 경영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 개발은 가정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의 영역과 내용 그리고 항목들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그 대상은 중년기 전업주부 가정으로 하고자 한다. 중년기 전업주부가정을 대상으로 한 배경은 현재 여성취업율이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그래도 여전히 전업주부집단은 우리 사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¹⁾, 이러한 전업주부집단은 통례적으로 가정경영의 주된 책임자이기 때문에 가정생활 관

표 1. 가정생활의 구조

생활행동의 측면		구조적 요인	시 간	공 간	수 단	금 전	역 할	규 범
생산적 행동	노동, 근무, 작업	가정생활의 시간적 배분	가정생활의 공간적 배분이 주거생활	의식주등 소비재의 소유·배분	가계구조와 생활수준	가족구성·가정내 역할분담	생활태도·생활규범	
사회적 행동	외출, 교제, 모임							
문화적 행동	교양, 취미, 매스컴 행동							
가정적 행동	가정·가족의 통합, 융화							
가사적 행동	가사노동, 구매							
생리적 행동	수면, 휴양, 식사, 몸단장							

출처 : 모수미 외(1994), 가정학원론, p. 185

런 양상을 분석, 진단하기 위하여 전업주부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면 보다 보편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년기는 아직은 자녀와 함께 살며, 빈둥우리시기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가족관계가 이루어지지만, 곧 다가올 노년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로 인한 부담 등 가정생활 전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따라서 합목적적인 가정경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년기 전업주부 가정은 그 특성상 그리고 비울상 우리 사회 보편적인 가정생활의 잘 보여줄 수 있음과 동시에 분석과 진단이 제대로 되어 원활한 가정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가정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효율적 방안으로 각 가정의 현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구조론 및 가계구조분석/진단이론, 가정생활설계론 및 가정복지론 등과 같은 이론적 틀을 점검하여,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의 내용을 구성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정생활구조론

생활구조론은 생활을 인간관계, 생활시간, 생활공간, 생활수단, 경제, 생활환경, 생활의식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통일적으로 인식하고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를 가정생활에 적용하면, 가정생활의 주체인 가족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자원(시간, 공간 등) 그리고 가정생활을 둘러싼 환경 등을 강조함으로써 가정생활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즉 생활구조론은 생활의 대부분이 가정을 중심으로 영위된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접근은 가정생활의 기능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따

1) 2000년 현재 전업주부는 총 6,252,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3%이며 전체 여성인구의 26.2%에 해당된다(통계청, 2001). 지금까지 15세 이상 취업가능 여성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전망을 보면 2002년에 48.19%, 2005년에 49.72%, 2010년에 51.98%로서 증가폭이 미미하여(정진화 외, 1999) 전업주부규모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전업주부가정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전형적인 가정유형으로 남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라서 <표 1>과 같이 앞서의 조건을 기준으로 가정 생활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면 시간, 공간, 수단, 금전, 역할, 규범의 구조적 요인으로 구별되며, 각각의 구조는 생활행동의 측면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보여준다(모수미 외, 1994).

한편 생활구조론은 가치와 행동, 지식, 조건 등의 개념을 구별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적 인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가치세계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의 가치활동을 의미하며 가치관의 실제적인 반영인 행동양식을 지칭하는 행동세계, 그리고 생활목표의 달성과 유효한 수단선택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정보와 기술인 지식세계, 마지막으로 생활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 환경과 여건을 지칭하는 것이 조건세계이다(정서린, 2000). 이와 같은 생활구조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정생활의 주체가 되는 주부의 개인적 가치관, 행동양식, 지식정도 뿐 아니라 가정생활의 운영방식, 특히 가정관리의 계획성 역시 가정생활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구조론을 통하여, 가계구조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본 연구에서 가정생활을 영역화하고, 분석과 진단의 내용 및 항목을 선정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체계적 접근법을 통한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의 틀

가계구조분석/진단은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 가계체계의 영역별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가계의 취약점, 강점을 파악하고 취약점은 보완하며 강점은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때 가계체계 및 그 하위체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인디케이터(indicator)를 통해서 한 가계의 구조가 가시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조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정리하는 작업도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는 체계적 접근에 따라 가정생활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그 하위체계들 및 환경 간의 관계

및 이를 통하여 형성되는 가계구조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가정학자 슈바이처(v.Schweitzer)교수는 일찍이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가계구조분석(household analysis) 프로그램을 시도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계구조분석은 각 가정이 갖고 있는 제한점, 취약점 등을 보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개선된 가정경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v.Schweitzer, 1983),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가계구조의 분석과 진단을 위해 가정생활이라는 하나의 전체 체계를 크게 물질 체계와 인적 체계로 구별할 수 있다. 이 때 인적 체계는 가족원 간의 관계·의사결정권·대사회적 가족지향성 등을 포함하며 물질 체계는 재무구조, 노동분담, 주거의 물리적 조건과 환경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가정경영과 관련된 자료로서 가정생활경영의 목표, (특히 경영자 즉 주부의) 정체감, 주부일에 대한 평가, 가정경영의 계획성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게 된다 (Schweitzer, 1967). 따라서 이러한 틀에 따르면, 가정생활의 복합적이고도 포괄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기 위해 가정생활을 우선 몇 가지 범주로 영역화 한 다음, 각 영역에서 분석과 진단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항목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가정생활설계와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

한편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은 가정자원관리학 연구분야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정생활설계의 중요한 과정을 구성한다. 가정생활설계는 단기·중기·장기의 관점에서 각 생활주기마다 직면하게 되는 가족원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가정자원관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실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기영 외, 1998). 따라서 가정생활설계를 위해서는 현재 가정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생활설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 상태를 정확히 알고 평가한 다음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실천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아래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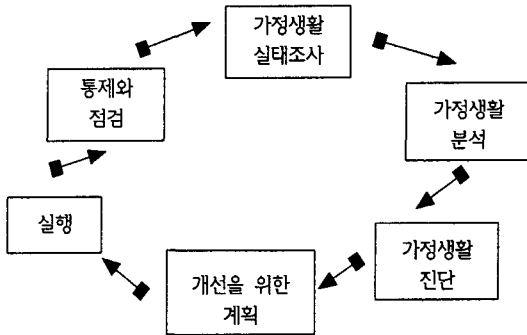


그림 1. 가정생활설계의 과정

인용 : 이기영 외(2001), 가정생활설계를 위한 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 - 가정자원관리영역의 척도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9차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가정관리학 분야의 통합적 실천> 자료집, p. 87.

이와 같이 가정생활설계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생활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가정생활의 양태를 알려주는 다양한 자료 중에서 어떤 내용의 것을 조사할 것인지와 관련된 기준이 필요하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정생활의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는 이를 정리하여 가정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분석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분석은 곧 진단으로 이어진다. 즉 실태를 파악한 후에는 대상 가정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해결되어야 할 문제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정보에 기초하여 개선을 위한 계획, 즉 협의의 생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를 실행하고, 필요한 때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 계획의 합리적 실행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 통제·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가정생활설계의 구조는 가계구조분석과 진단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틀을 제공해 주며, 특별히 가계구조분석과 진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 기준과 항목 등을 결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이기영 외, 2001).

본 연구에서는 생활구조론, 체계적 접근에서의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의 틀 그리고 가정생활설계에 적용된 관점을 합하여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즉 가정생활 전체를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되, 어떤 영역으로 구분할 것인가는 생활구조론과 체계적 접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적인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정생활설계의 과정으로서 분석과 진단을 위해 가정생활 실태 조사의 과정을 두어, 가정생활의 영역별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분석과 진단을 위해 유용할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적인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4. 가정복지와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

최근 가정학/생활과학 특히 가정관리학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관점에 복지적 관점을 더하여 연구의 실천성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개인·가족·사회의 복지증진이라는 가정학의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나, 연구의 결과와 축적된 자료, 정보가 실제 가정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사회가 복지를 추구하게 되고 여러 학문분야도 이러한 복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면서, 특히 실천적 학문으로서 생활과학의 각 연구분야 역시 이러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가정관리학 분야에 더 두드러져, 기존의 가정관리학과가 그 명칭을 가정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등으로 변경하거나 교과과정에서 복지 관련 과목을 추가시키는 등의 노력이 활성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처럼 복지적 관점을 받아들여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논의는, 생활과학 혹은 가정관리학의 하위연구분야들이 어떻게 가정복지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이다. 즉, 어떠한 연구 주제와 연구내용을 통해 우리 연구분야의 실천성

을 담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연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구혜령 외, 2001).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가계구조분석과 진단은 가정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효율적 경로가 될 수 있다. 가정복지는 가정생활 상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하여 가정 스스로 생활의 유지·인격의 형성 및 발달·공동문화의 창조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 라고 한다면(송혜림, 1999), 구성원의 욕구 충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욕구충족의 수단인 자원이 필요하고, 늘 자원의 제한성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로서는 자원의 합리적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가계구조분석과 진단은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가족원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 자원의 합리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족원의 불만족과 만족은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정복지적 관점에서 가정생활의 분석과 진단은 개별가정을 대상으로 구성원이 갖고 있는 복지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며, 진단을 통하여 가정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을 계획으로 보고 있다(조희금 외, 2002). 따라서 가계구조분석과 진단은 가정복지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5. 중년기 전업주부 가정

한편 노부모 그리고 (거의)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중년기는 40-59세에 속한 집단을 지칭하는데(김병자, 1998:32), 중년기 전업주부는 전체 전업주부 중 35.9%에 해당한다(통계청, 2001). 즉 전업주부가정의 35.9%가 중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중년기는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거

나 고등교육 및 취업, 결혼으로 인한 배출이 시작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송혜림, 1998).

중년기의 가정은 일상적인 생활유지 외에 청소년, 성년기 초기 자녀의 교육 및 생활비, 용돈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더하여 노부모의 경제적 봉양으로 인하여 가계지출이 상당히 과다할 가능성이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다가 올 노년기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가정경영과제로 떠오르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년기 가계의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노후준비 여부 그리고 그 정도가 된다. 또한 실제로 중년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중년기에는 전반적인 노후준비가 가정경영 및 생활설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후준비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그리고 여가에 대한 준비 등을 의미한다(양순미/홍숙자, 2002). 중년기 가계지출에 대한 연구를 보면(송혜림, 1998) 중년기는 특히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서, 경제적 곤란을 느끼는 비목이 과외비 조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축이나 자금 조성의 우선순위는 주택마련 및 확장자금, 자녀결혼비, 자녀교육비, 노후보장비, 사고질병에 대한 자금 등의 순서로 나와, 매우 다양한 경제적 과제를 위한 준비가 중년기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살림을 전담하고 있는 전업주부들은 특히 중년기가 되면 그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던 자녀교육과 관련된 일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자녀양육과 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 이처럼 자녀교육과 관련된 업무들이 감소된다는 것은 중년기 전업주부들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 그것은 한 편으로는 역할상실과 관련된 부정적 의미임과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증가된 자유시간으로 인해 새로운 생활의 여유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서 긍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노동 영역에서 자신의 인적 자원을 개발시켜 왔던 전업주부들은 따라서 가사노동의 가치, 어머니·아내·주부·며느리·딸과 같은 다양한 역할 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된다(조희금 외, 2002). 따라서 중년기 전업주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부정체감, 주부의 가정경영능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중년기는 다른 생활주기에 비해 보다 복잡한 경영과제를 갖고 있는 시기이며 가정자원의 배분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따라 이후에 지속되는 노년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계구조의 분석과 진단에서 이러한 노후준비, 경제적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들도 분석과 진단의 척도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중년기 전업주부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내용과 범주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를 가정생활의 영역화, 분석을 위한 가정생활의 영역별 항목 선정, 진단을 위한 기준 선정으로 구별하고자 한다.

1. 가정생활의 영역화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구조 분석과 진단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가정생활구조론 및 체계적 접근법에 따른 가계구조분석/진단의 틀 그리고 가정생활설계론 등에 근거하여 가정생활의 영역을 크게 전반적인 가정경영 영역·생활시간영역·생활공간영역·소비재 및 내구재 자원 영역·가계경제영역·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영역 등으로 구별하고자 한다. 또한 중년기 전업주부 가정이라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부의 정체감에 대한 항목 그리고 동시에 노년기를 대비한 준비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편 가정생활의 분석과 진단을 위해서는 그 가정이 갖고 있는 목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정경영을 비롯한 다양한 가정생활의 영역에 있어서의 실태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합리적인가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위에서 언급한 가정생활의 영역 외에 그 가정이 지향하는 바, 생활목표를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상술한 바 각 구성영역을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가정경영 영역

가정경영은 제한된 자원으로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과정들로서 얼마나 목표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하였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생활의 운영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 자체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새로운 상황과 조건의 변화, 또는 환경적 조건의 변화에 적응하는 관리적 역동성을 지닌다(v.Schweitzer, 1983). 따라서 가정생활의 운영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운영되는가가 한 가정의 합리적 경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고찰의 가정생활구조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과 공간, 물적 자원, 규범, 가족원의 역할 등 가정생활의 다양한 국면들이 함께 분석·진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내용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수행하는 가정경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가족의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2) 생활시간 영역

가정을 재생산의 단위로 파악할 때, 가족원의 생활시간은 노동력재생산과 노동력소비의 시간으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서 노동력 소비시간은 가정생활의 물적 수단과 금전자원의 획득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력재생산시간은 육체적, 정신적 재생산시간인 생리적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과 재생산을 위한 조건마련의 가사노동시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생활시간영역을 다른 관점에서 분류하면 사적인 시간과 공적인 시간, 개인적 시간과 사회적 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시간은 이러한 시간범주로 나뉘지게 된다. 따라서 가족원 각 개인 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볼 때, 생활시간 영역별로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균형이 가족원의 복지와 전인적 발달에 중요하다(두경자, 2002; 이기영·김의숙,

2002). 따라서 가계구조의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가정복지의 수준을 검증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생활시간 영역의 균형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생활공간 영역

생활공간은 생활시간과 함께 가정생활을 규정하는 외적 조건으로서, 가족원의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는 물리적 조건이다(모수미 외, 1994). 생활공간은 가정생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공간의 넓이, 구조, 설비 등의 영역과 가정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생활공간의 적합성은 가정생활운영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가족원이 살기에 적합한 생활공간인가 하는 점이 일상적 가정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생활공간 즉 주거와 주택의 상태가 그 가족이 생활하기에 얼마나 적절한가를 분석, 진단하고자 한다.

4) 소비재 및 내구재 자원 영역

소비재와 내구재는 가정생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구적 수단이며, 가정생활을 전개하는데 매개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상품화, 기계화로 인해 상품화된 소비재에 대한 가정생활의 의존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및 내구재 자원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외숙·이기영, 2002). 따라서 소비생활에 요구되는 재화인 소비재의 적합성, 즉 편리성과 능률성, 그리고 활용도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가계구조분석과 진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가계경제 영역

물적 자원과 함께 금전자원은 가정생활의 물적 기반이 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가계의 물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계의 금전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축적되는가, 즉 자산과 부채간의 균형이 중요한 문제이다(김외숙 외, 1998; 임정빈 외, 2002). 이와 함께 소득을 토대로 실제 생활영역에 어떻게 지출되는가의 문제는 가정생활의 양적 수준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정생활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구조분석과 진단시 가계경제 영역의 안정성, 지출상태의 균형성 등을 포함하여 가정의 목표에 맞게 경제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영역

앞서의 물적 수단과 금전자원이 가정생활의 도구적 기능을 위한 수단이고 매개적 조건이라면, 개별 가족원들은 가정생활을 통해 가족원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간에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가족원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가정생활을 운영하는 것이 가정생활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또한 역할분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정경영과정에서 가족원들의 의사소통과정 및 의사결정유형 등은 가정관리를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므로, 가정생활의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임정빈 외, 2002). 특히 가족원은 가정생활의 주체로서 날마다의 일상적 가정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의사결정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며, 이를 위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등을 분석과 진단의 내용으로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7) 주부정체감과 가족원의 심리적 건강

이 영역은 크게 둘로 나누어, 첫째, 한 가정을 경영하는 주체로서 주부가 중년기의 시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 보고, 가정과 사회에 대한 가정살림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전업주부로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등을 파악함으로써 중년기에 처한 전업주부 자신을 가정의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가정경영의 주체로서 살아온 전업주부가 앞으로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가정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제시되면 좋을 것인가 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석과 진단에 있어서 주부가 가정경영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주부 정체감은 매우 중요한 속성이지만, 동시에 주로 핵가족 형태로 살아가는 현재 가정생활에서 주부 뿐 아니라 다른 가족원이 가정생활에 대해 갖는 심리적 부

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정경영의 주체도 주부 뿐 아니라 남편, 가족원에게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주부 정체감 외에 가족원 전체가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의 분석과 진단의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원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8) 노후준비 영역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중년기 가정이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시기이다(김외숙 외, 1998; 송혜림, 1998). 따라서 노후에 대한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중년기 가정의 분석과 진단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준비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가정의 상태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어떤 준비를 더 해야하는가를 진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9) 생활목표 영역

가정생활의 운영주체인 가족원의 가치관, 생활규범 및 생활태도 등은 가정생활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뿐 아니라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이나 자연환경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체계적 접근법에서 제시한 바, 인적 하위체계에서 한 가정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와 방향성은 가정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기능으로서 개별가정의 생활규범이나 태도가 어떠한가의 문제 역시 가계구조분석의 중요한 영역을 구성한다(이기영 외, 1998). 따라서 가계구조의 합목적성과 지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생활목표의 점검은 분석과 진단의 중요한 내용을 형성할 것이다.

2. 분석을 위한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 프로그램의

내용과 항목 구성

가계구조분석과 진단을 위해 필요한 가정생활의 주요 영역들을 설정한 다음에는 각 영역별로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 구체적인 분석과 진단의 항목을

구성할 것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가정경영 영역의 항목

가정경영 영역에서는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여 왔는가의 수준과 정도를 분석·진단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가정경영의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문숙재·김혜연, 1987;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2000; 송혜림 외, 2001).

첫째, 시간관리 영역으로서 시간의 계획과 실천 정도, 우선순위, 시간낭비 요소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항목이다.

둘째, 재무관리 영역으로서 예산 세우기, 가계부 기록, 지출의 신중성, 지출 시 정보의 탐색 등을 점검하는 항목이다.

셋째, 가사노동 관리 영역으로서 가사노동의 분담 계획과 실행, 자녀에 대한 가사노동 실행 능력 기회 제공 등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항목을 통하여 조사 대상 주부가 얼마나 합리적·합목적적인 가정경영을 하는가를 전반적으로 분석·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시간 영역의 항목

생활시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생리적·여가·노동시간 등의 균형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경향이다(이기영 외, 1994; 이승미, 1997; 조희금 외, 2001).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생활시간 영역에서는 가족원의 전반적인 생활시간배분내용을 시간량으로 분석하여, 수면·가사노동·여가·가족단란 등 생활영역에 따른 균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각 생활영역별 시간배분량에 대한 자기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간량을 주관적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느끼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이를 시간사용 만족도를 진단하는 지표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여가활동이 일상적 삶에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가족원의 여가활동 참여정도, 부부 공유 여가활동과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을 항목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3) 생활공간 영역의 항목

주거 및 주택 분야에서는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된 주거기준이나 분석의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다(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1999; 부산연구원 1996; 서울특별시, 1997).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주거 및 주택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위하여 먼저 객관적인 자료로서 함께 사는 가족수, 주택형태, 주택규모, 방의 사용상태 등을 파악하는 항목을 구성한 다음, 주택규모 등에 대한 자기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자신이 사는 주택에 대하여 얼마나 적절하게 느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거환경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위하여 소음의 유무, 재래시장·근린상가·백화점 이용의 편리성, 출퇴근의 용이성, 학군, 교육환경 저해요인 유무, 문화센터·자연환경 등의 충분성, 가사작업 공간의 편리성, 수납공간의 충분성, 자녀의 학습·휴식·문화공간의 충분성 등을 분석·진단하고자 한다.

4) 소비재 및 내구재 자원 영역의 항목

소비재 및 내구재 자원 영역에서는 가정이 소유한 내구재를 중심으로 그 보유여부, 개수 및 활용상태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내구재의 적절함 그리고 내구재에 대한 만족감 등을 포함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물적 자원 영역의 적절성을 분석·진단하고자 한다(모수미 외, 1994).

5) 가계경제 영역의 항목

가계경제와 재무 영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소득과 지출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분석과 진단이 행해지고 있다(김기욱, 1997; 최윤지 외, 1998; 홍향숙 1999). 이러한 연구들은 무엇보다도 개별가정에 있어서는 가계경제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경제 영역에서는 소득과 지출의 균형 및 재정상태의 안정을 중심으로 분석·진단하고자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소득액·지출액 및 그 적절성에 대한 평가, 각 지출비목별 지출액, 자산과 부채의 비율, 저축상태, 경제적 우선순위 등을 항목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관리비나 세금의 부담, 경조비 부담,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갈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가와 취미생활을 위한 경제적 여유,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비비, 저축을 위한 여유, 노후를 위한 여유 등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경험의 빈도를 파악하는 항목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밖에 소득 중단시 현재 수비수준 지속 기간, 경제적 안정상태에 대한 상대적 평가 등을 함께 검증하여 가계경제의 안정성 정도를 분석·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중년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생활비, 예상되는 소득과 생활수준, 노후 생활비 마련 방안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중년기의 경제적 과제를 어느 정도 안정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석·진단하고자 한다.

6)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영역의 항목

가족원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가를 분석·진단하기 위하여 가족원의 응집과 적응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어은주·유영주, 1995; 이정우 외, 1992; 최연실, 1996). 이에 따라 가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 경청, 귀가 후 그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정도 등을 포함하여 의사소통의 원활성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의사결정 영역의 분석과 진단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시 가족원에 대한 배려, 가족원 간 협력 정도, 책임부담, 의사결정시 가족원의 참여 등을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항목에 대한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가족원이 개방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분석·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7) 주부정체감과 가족원의 심리적 건강 영역의 항목

최근 들어 꾸준히 수행되고 있는 일련의 주부연구를 보면,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주부가 하는 일의 가치, 주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중 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송혜림, 2002; 김선미 외, 2001; 김선미, 2002). 선행연구가 제안하는 바에 기초하여, 주부정체감 영역에서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주부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주부정체감을 분석·진단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정 주부 역할에 대한 만족도, 가정과 사회에서 전업주부의 지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수행의 적성, 가

사수행의 보람, 가족원들의 반응 등과 관련된 항목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딸, 며느리, 아내, 아줌마, 어머니 여성, 주부 등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이름을 파악함으로써, 주부정체감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족원의 심리적 건강 영역을 분석·진단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가족원 각자의 개인적인 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등의 점수를 합하여 심리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8) 노후준비 영역의 항목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송혜림, 1998) 노후를 위한 다양한 준비 중에서 어떤 영역을 더 우선시 하는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경제적 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준비 영역에서는 노후를 위한 신체적·경제적·정서적·여가생활에 대한 준비의 긴급성, 노년기 자녀동거에 대한 선호도, 자아정체감·노화·여가·건강·가족관계 등 노년을 앞둔 현재 시기의 고민되는 문제, 노년기에 부부가 함께 하고 싶은 여가와 문화활동 등을 통하여 노년기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을 알아본 다음, 노년기를 대비한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준비상태를 분석·진단하는 항목을 구성하고자 한다.

9) 생활목표 영역

생활목표는 다른 영역들이 함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따라서 생활설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건강, 여가, 노후준비, 자기개발과 같은 유형 중에서 대상 가정이 어떤 생활목표를 지향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생활설계의 이론에서는 이를 생활양식이나 생활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족원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치를 부여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기영 외, 1998).

3. 진단을 위한 기준 선정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

을 선정한 다음에는 이러한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수집한 자료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진단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진단은 각 가정체계가 갖고 있는 강점과 취약점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진단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정생활의 여덟 가지 하위영역들이 전체체계인 가정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체계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 맺음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의 원활한 유지에 기여하는가를 모색하여, 각 영역별 기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 진단을 위한 기준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 가정경영 영역에서는 얼마나 가정의 목표에 부응하는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가정경영의 합목적성과 합리성이 진단의 기준이 될 것이며, 생활시간 영역에서는 시간 배분의 균형성, 생활공간 영역에서는 가족원이 살아가기에 적절한 공간인가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주거·주택의 적절성, 물적 자원 영역 역시 적절히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적절성, 가계경제 영역에서는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안정성,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응집과 적용의 정도가 기준이 될 것이다(이기영 외, 1998).

또한 최근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송혜림 외, 2001)에서는 가정생활의 분석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가족원의 만족도를 질문하여 만족의 정도를 상중하로 구별한 다음, 각 만족집단 별로 가정생활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시켜 본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항목을 질문지로 만들어 실제 조사를 한 다음, 조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생활시간 영역에서는 자신의 생활시간 배분에 만족하는 집단 혹은 생활시간 배분이 균형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이 집단의 평균적인 생활시간 배분량을 살펴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계경제 영역에서는 자신의 가계상태에 만족하는 집단 혹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집단의 소득/지출 비율, 전체지출에서 개별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자산과 부채 비율, 소득과 저축의 비율 등이

평균치를 추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노후준비상태에 만족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경제적 준비정도, 예상되는 소득과 지출 등의 평균치를 진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알려 줌으로써, 현재 어떤 점이 부족하며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보다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진단의 기준치가 필요할 것이다. 주거와 주택 영역에서의 유도기준, 가계경제 분야에서 개발된 재정상태 평가표 등을 적용하는 방법이 그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항목을 가능한 다양한 조사대상자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조사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생활목표를 진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미 생활설계 상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이기영 외, 1998), 생활목표를 검증하는 항목을 통하여 대상 가정의 생활목표와 지향성을 분류한 다음, 실제 생활의 각 영역에 이 목표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생활목표가 건강에 있다면, 건강을 위한 지출의 비중, 건강과 관련된 시간 배분량 등을 살펴봄으로써 혹은 생활목표가 자기개발에 있다면 자기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출, 시간 배분 등을 파악함으로써 이 가정이 목표에 부합되는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가계구조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생활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가정생활의 세부영역에 보다 집중하여 연구함으로써 가정생활의 단면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한계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구조론, 체계적 접근법 등에 기초하여 가정생활을 통합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를 요약하면, 첫째 가정생활이라는 전체체계를 몇가지 하위체계로 구분함으로써 각 하위체계, 즉 가정생활의 영역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별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이러한 가정생활의 영역별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여야 효율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분석의 결과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구별하고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가정생활을 가정경영, 생활시간, 생활공간, 물적 자원, 가계경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목표 영역 그리고 중년기 전업주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부정체감과 노후준비도를 영역에 포함시켰다.

가계구조분석과 진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면, 먼저 프로그램을 질문지로 만들어 다양한 대상을 통한 조사를 하여 그 양적 결과를 축적하여 가정생활의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개별 가정 하나 하나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 가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강점과 약점을 분석·진단하여 생활설계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는 또한 상담과 연계되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목표로 한 바, 가계의 구조를 분석, 진단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하고 장점을 강화함으로써 가정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복지서비스의 개발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어떤 구체적인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가정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계구조분석 및 진단프로그램을 보다 간결하게 재구성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보다 용이하게 자기 가정의 상태를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도 일반 가정에서 쉽게 자신의 가정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특정 가족생활주기에 해당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현실점에서의 가정생활수준을 평가 가능하게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데도 좋은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생활주기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첨가, 삭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학동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면 자녀교육이라는 면을 좀 더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면 또한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영역들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단의 기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축적되려면 많은 대상을 통한 조사의 결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제 활용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실태 및 이를 통한 진단의 기준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 생활주기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프로그램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가정복지, 가계구조분석과 진단, 생활설계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1999). 시민주거안정과 주거 기준 달성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구혜령·김선미·송혜림·이승미(2001).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 활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 4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가족자원관리 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향> 자료집.
- 구혜령·조영희(2000).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를 통한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의 현장실천성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7차 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14-33.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교문사.
- 김선미(2002). 한국주부의 정체감과 사회의식 : 가사노동의 사회적 특성과 주부역할의 재정의에 위 한 제언.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세계적 전망에서의 한국학> 자료집, 215-217.
- 김외숙 외(1998).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김외숙·이기영(2002). 가정생활과 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두경자(2002). 생활시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신평출판사.
- 모수미 외(1994). 가정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문숙재·김혜연(1987).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5(2), 89-107.
- 박혜인 외(1999). 가정복지사의 주민자치센터 참여 방안 - 가정복지센터의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82-190.
- 부산발전연구원(1996). 부산시 주거수준에 관한 조사 연구.
- 서울특별시(1997).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 기준 및 정책개발 연구.
- 송혜림(1998). 중년기 가계의 노후대비 지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33-149.
- 송혜림(2000).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과 가정 복지의 방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31-41.
- 송혜림(2002). 한국 기혼여성들의 정체감과 역할 비중 비교연구 : 모성의 중심성과 한국문화의 특유성.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세계적 전망에서의 한국학> 자료집, 218-224.
- 양순미·홍숙자(200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41-150.
-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유영주(1995). 가정학과 가정복지. 대한가정학회 제 48차 춘계학술대회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자료집 1-2.
- 이기영·구혜령·송혜림·이승미(2001). 가정생활설계를 위한 분석 및 진단프로그램 - 가정자원관리영역의 척도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9차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가정관리학 분야의 통합적 실천> 자료집.
- 이기영·김외숙(2002).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이기영 · 송혜림 · 이승미 · 구혜령 · 김유경 · 김선미(2001). 가정생활구조분석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37-149.
- 이기영 · 조영희 · 송혜림 · 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교문사.
- 이승미(1997). 가족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빈 외(2002). 가정관리학. 신정출판사.
- 정서린(2000). 정보화가 가정생활 구조에 미친 영향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화 외(1999). 지식기반사회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개발. 여성특별위원회.
- 조희금 외(2002). 가정생활복지론. 신정출판사.
- 최연실(1996). 가족 적응력 · 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5.
- 최윤지 ·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Rosemarie v. Schweitzer(1967). Analyse und Planung des landwirtschaftlichen Haushalts. DLG-Verlag.
- Rosemarie v. Schweitzer(1983). Einführung in die Wirtschaftslehre des privaten Haushalts. Ulmer-Verlag.
- (2003. 9. 26 접수; 2003. 11. 3 채택)